

서평

www.kci.go.kr

강영안의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김 재 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오랜 관심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이에 대한 답이 서로 달랐을 뿐. 적어도 서양철학에서 ‘진리’는 ‘있음’과 관계된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참으로 있는 것’이 진리이고, 반대로 ‘가짜로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탐구는 무엇이 참으로 있는 것인지를 찾는 일이었으며, 이것이 서양철학이 ‘존재’에 관한 탐구에 열중한 이유이다.

고대의 자연철학자들이 처음으로 ‘시원’(arche)에 관해 물었을 때, 그들의 관심 역시 ‘참으로 있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변화무쌍한 현상들 앞에서 이들은 질문한다. 참으로 있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인가?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이후 ‘사유(思惟)’의 위대한 능력을 신뢰하였던 고대인들은 드디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가상’(假象)의 세계라고 믿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 소멸하

는 세계는 단지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 참된 ‘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있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감각을 배제한 순수한 사유 속에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경험’이 아닌 ‘사유’를 통해서만 참된 존재의 세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이데아’(idea)만이 참으로 있는, 다시 말해 ‘실재하는 세계’라고 가르쳤다. 참된 진리를 만나는 길은 우리의 사유 속에, 즉 ‘관념’(idea)속에서만 성립한다고 믿는 관념론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존재’가 ‘사유’를 통해서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만이 참으로 실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의 세상, 다시 말해 보이는 세상은 꿈과 같은 거짓의 세상으로만 남게 된다. 결국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관념론의 이러한 광신적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만이 참으로 실재하는 세상일 것이라고 믿는 이들의 반박에 부딪치게 된다. 무엇이 참으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참으로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고민한 서양철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들 간의 갈등과 화해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칸트는 이들 중 어느 편에서 있는 것일까? 대답은 둘 다 아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그에게서 진리는 오히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의 차이와 경계를 밝히는 것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아니 나아가 그의 진정한 관심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 긋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 보려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에만 진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에 말이다.

강영안의 최신작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년)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칸트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묻고 있다.: “칸트는 어느 쪽에 속할까? 칸트철학은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을까?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지식인가? 지혜인가?”(6쪽). 그리고 서문을 통해 예상하건대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주려는 답은 이들 중 하나는 아닐 것 같다. 저자가 이 책에서 드러내고자 한 칸트

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개념으로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을 마치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저 멀리 가나안을 바라본 모세처럼 바라본 철학자”(7 쪽)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2. ‘좁은 주제’와 ‘더 큰 문제의 틀’

학술 연구서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충실한 연구의 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줄 것.

철학의 경우, 특별히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철학자의 텍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첫 번째 기대는 주로 관련된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이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것은, 해당 주제의 연구 성과가 의미하는 바를 더 큰 문제의 틀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문제의 식에서 발전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동기부여와 관련되어 있다. 전자가 학문후속세대나 관련 주제를 천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토대연구의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구체적인 문제가 더 큰 문제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소위 거대담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술 연구서에 요구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자가 있어야만 후자가 가능한 것이고, 후자가 없는 전자는 숲을 보지 못해 방향을 잃고 나무에만 매달린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이 둘이 잘 조화된 경우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여러 철학적 문제를 넘나들며 큰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걸맞은 거대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는 많지만, 그에 요구되는 문헌적 고찰과 논증은 태만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가끔 발견되는 구체적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해석의 작업은 그것을 둘러싼 문제의 지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그 속에 매

몰되고 만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영안의 『칸트의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는 학술 연구서에 대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흔치 않은 연구서이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이 책의 태생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문에서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영어로 출판된 저자의 학위 논문(*Schema and Symbol* 1985, Amsterdam)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칸트의 ‘도식론’(Schematismus)과 관련하여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던 이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고, 거기에는 “그때는 좁은 주제에 매여야 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던, 좀 더 큰 문제의 틀, 곧 근대 형이상학의 표상적 사유와 근대 주체의 모습을 좀 더 부각시켜보려고 애썼다”(7쪽)라고 했으니, 앞서 생각해 본 학술 연구서의 전형과 관련하여 이 책이 보여준 탁월한 성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언급한 이 책의 탁월한 성과를 독자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책이 한편으로 천착하고 있는 “좁은 주제”가, 또 다른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좀 더 큰 문제의 틀”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세한 논의를 꼼꼼히 읽되, 그것이 큰 틀의 문제와 갖는 연관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쫓아가다 그 논의의 지평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칸트와 형이상학

제목을 옷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자신의 몸을 돋보이게 하는 잘 맞는 옷을 고르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 어딘지 약간은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몸매에 딱 맞지 않아 체형의 아름다움을 감추어버리는 험 거움이 이 책의 제목에서 묻어난다.

그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형이상학’이라는 단어이다. 분명 이 책은 근대

의 형이상학적 사고, 특별히 칸트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목 속에 ‘칸트’와 ‘형이상학’이라는 두 단어를 막상 조합해 놓고 보니, 이로부터 독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약간은 진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책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

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칸트 철학의 정체성이 핫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칸트가 형이상학자인지, 아니면 반형이상학자인지. 칸트철학의 궁극적 관심이 인식론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이상학에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때가. 하지만 최근의 논의에서 이러한 논란은 더 이상 중심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칸트가 단순히 전통적 형이상학을 폐기 하려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형이상학을 정초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의 무게 중심이 형이상학에 놓여 있음에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칸트 철학의 정체성을 형이상학이라는 학문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신선한 주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책의 2장 “형이상학과 초월철학”(35-75쪽)을 저자는 형이상학과 연관된 칸트철학의 정체성문제로 시작한다. 그렇다고 이 책의 궁극적인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형이상학’이라는 주제는 이 책의 중심 문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동시에 종착점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서 칸트철학과 형이상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제목의 탓일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핵심적 논의가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하고, 심지어 최신의 철학적 담론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뒤쳐진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 이 책의 핵심 문제의 구체적 형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부풀림으로써 오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 책으로부터 ‘칸트의 형이상학’, 혹은 ‘칸트에게서의 형이상학’에 관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 독자라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은 분명 칸트 철학에서 형이상학의 체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어떻게 이 체계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칸트 철학의 핵심사상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칸트가 『판단력비판』 제1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형이상학 체계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과 가능한 오해들 때문에 이 책에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를 뺄 수는 없을 것 같다. 형이상학과 관련된 칸트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이 책의 ‘좁은 주제’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며,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가 지향하는 ‘더 큰 문제의 틀’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4. 근대 형이상학과 ‘표상적 사유’

다시 책의 제목으로 되돌아가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제목이 이 책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주된 책임은 ‘표상적 사유’라는 단어에게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단어를 사용한 저자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이 용어를 통해 저자는 이 책의 ‘좁은 주제’를 ‘더 큰 문제의 틀’과 연관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칸트와 표상적 사유”(17-32쪽)에서, 이 책의 핵심 연구주제인 칸트의 ‘도식론’과 ‘표상적 사유’와의 연관성을 대략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하이데거(Heidegger)와 생각을 같이하여 근대 형이상학의 특징을 ‘표상적 사유’로 파악하고, “근대 표상적 사유의 모습을 칸트의 이론철학을 통하여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19쪽)이 저자의 일차적 관심이라면,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칸트의 도식이론은 더 이상 작은 주제로 머물지 않고, 근대 형이상학의 정신이라는 큰 주제와 만나게 된다. 두 번째로, ‘표상적 사유’ 자체가 ‘도식론’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표상'(Vorstellung)은 저자가 이해한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실'을 '관리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인간 지성의 활동이다. 그런데 인간 지성의 활동은 '상상력'(Einbildungskraft)을 통해서만 구체적 현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그림'(Bild)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 칸트에 계서는 '도식론'이다. 마지막으로, 칸트 비판철학의 핵심문제인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국 "칸트가 이해한 근대 사유의 특징적인 형태로서의 '표상적 사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21 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표상적 사유'라는 개념은 이 책의 본격적 논의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장에 소개된 근대 형이상학의 특징으로서의 '표상적 사유'에 관한 짧은 언급을 제외하고 나면, 이후 본문에 서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장을 제외한 본문의 제목에(3장, 4장, 7장, 8장, 9장, 10장) 등장하는 '표상적 사유'라는 용어는 웬지 본문의 논의와 별개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12장, "표상적 사유를 넘어서, 다시 표상적 사유 안으로"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책에서 '표상적 사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칸트 철학을 대변하는 것으로, 혹은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도식과 상징에 의한 사유와 동일화 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굳이 제목에 등장하는 '표상적 사유'와 관련된 아쉬움을 길게 언급한 것은, 이와 관련된 본격적 논의가 단순히 이 책이 목표한 '좁은 주제'를 '더 큰 문제의 틀'로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칸트 철학을 둘러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개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표상적 사유' 역시 이 책의 제목에서 뺄 수는 없겠지만, 다만 별도의 장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와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 도식(schema)과 상징(symbol)

서양 근대정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자아’(Ich) 혹은 ‘주체’(Subjekt)의 발견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새롭게 찾아낸 ‘자아’는 단순히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주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근대의 주체는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며, 스스로 자신의 표상을 산출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이러한 근대의 정신은 칸트 철학에 그대로 계승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부여받게 된다. 칸트가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의 전회’에 비유한 ‘사유방식의 혁명’은 바로 이러한 인간 정신의 구성능력에 대한 발견에 다름 아니다. ‘주체의 자발적 행위’를 통해 칸트는 이제 더 이상 대상에 의존적인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을 스스로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동적 주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칸트가 생각한 능동적 주체는 스스로 표상을 만들어내는 자발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상자체를 그 존재에서부터 산출해 내는 신적 직관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인식의 대상은 언제나 직관 중에 경험을 통해 주어져야 한다. 다만 인간은 이 무질서하게 주어진 재료들에게 경험의 질서를 부여할 뿐이다. 칸트 이론철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선험적 기원을 가진 우리인식의 형식들이 어떻게 경험적 대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말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서의 칸트의 과제였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칸트의 ‘도식론’(Schematismus)을 다룬 부분이다. 본문의 3장부터 7장까지가 주로 『순수이성비판』의 초월적 도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실 ‘도식론’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범주의 초월적 연역에서 이미 등장한다. 특히 1787년 새롭게 추가된 재판의 연역은 도식론의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에 여전히 등장하는 ‘도식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구서는 우리에게 칸트의 ‘도식론’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도식론을 확장하여 초월적 이념들의 감성화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서는 칸트의 ‘상징론’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책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언급할 수 있게 되었다. 3장에서 7장에 이르는 내용은 칸트의 ‘도식론’과 관련된 이론철학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는 자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장부터 10장에 등장하는 상징론과의 연관관계를 통하여 칸트에게서 도식론의 문제를 단순히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해결하는 방책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의 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칸트에게서 ‘표상적 사유’가 어떻게 도식과 상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말이다.

6. 칸트를 넘어 다시 칸트 안으로

이 책의 결론인 마지막 장에서(11장: 277-294) 저자는 앞선 장에서 얻은 연구의 성과를 근거로, ‘좁은 주제’를 ‘더 큰 문제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본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도식과 상징이 제공해준 칸트 철학의 특징을 장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식론’과 비교하고 있으며, 또한 상징과 반성간의 관계를 단초로 하여 리콤폴 철학과 대화의 시도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서의 철학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레비나스 철학에 말을 걸고 있기도 하다.

저자의 이러한 시도들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도, 백과사전적 박학함에 기인한 현학적 유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자신이 탐구하고 찾아낸 칸트철학의 위대함과 독특성을 더 똑똑하고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칸트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보다는 더 화려한 장식과 옷을 걸치고 등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험뎠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 더 큰 문제의 틀을 통해 칸트 철학의 구체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다.(예컨대 286쪽: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레비나스의 사상에 비추어 칸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칸트철학의 위대함을 저자는 “현실의 신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데”(284쪽)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이해한 ‘현실’은 ‘현상’보다 더 넓은 개념, 다시 말해 경험적 인식으로 다 파악될 수 없는 더 넓은 영역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위대함은 동시에 칸트철학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다. ‘도식’과 ‘상징’에 대한 저자의 연구가 이 위대함을 밝히는 작업이었다면, 그것이 치명적 약점이라고 느끼는 또 누군가는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쓴 칸트의 노력에 주목하고, 그 약점을 깨닫고 스스로 교정하려고 애쓴 철학자의 노력에서 더 큰 위대함을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

이중 무엇이든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칸트철학에 대한 고정된 틀을 깨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칸트 철학의 풍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칸트 철학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더 큰 담론의 장에서 만나게 되는 칸트의 모습이 꾸며진 장식으로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는 칸트철학으로 되 돌아와 그 속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나만의 오해가 아니었다면, 저자가 마지막 장의 제목을 “표상적 사유를 넘어서, 다시 표상적 사유 안으로”(275쪽)라 붙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으리라.